

■ 교육

특별활동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 성적(GPA)이다. 물론 이 외에 다른 많은 요소들도 필요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에세이와 추천서는 물론 특별활동이 남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 가 대입을 위한 특별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 사진=shutterstock

1. 진정한 열정이 빛을 발하게 하라.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들이 제시하는 액티비티에 대해 무척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학생들이 어떤 활동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것을 안다. 학생들은 입학 사정관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액티비티를 앞세우려고 한다. 입학 사정관들에게 “좋게 보인다” 라고 평가받기 위해 강조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액티비티의 나열, 즉 개수가 아니라 열정을 보이고 그 활동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못해 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도록 영감을 줄 과외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과외 활동이 대학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지에 대한 선입견을 잊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에 집중하라.

2. 열정을 헌신으로 끌어올려라

만약 자신에게 가장 흥미를 주는 분야와 열정을 안다면, 자신의 헌신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가장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깊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을 찾고 식별해야 한다. 가능한 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과외 활동에 대해 많이 배우도록 하라.

3.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좋은 학년은 9학년이다.

만약 9학년에 들어서서 자신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9학년은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 몇 가지 다른 과외 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마도 학생들은 9학년 때 연극 동아리와 테니스 클럽에 등록하고 자신의 열정이 정말로 운동경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클럽 등록부터 할지 모른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떤 활동들이 자신에게 흥미롭고 몰입하게 하는지 알게 되고 자신의 전문지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다.

4. 둘 이상의 특기를 가져도 좋다.

좋아하는 활동이 여러 가지라면 어떨까? 어떤 지원자들은 선택한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그들의 열정 중 일부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중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일부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보다 더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입학 사정관들은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을 입학 사정 과정에서 만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로워 하는 활동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실비치 피어(Seal Beach Pier)

실비치는 헌팅턴비치와 롱비치 중간에 있다. 실비치로 가기 위해선 퍼시픽 코스트하이웨이(PCH)를 타고, 헌팅턴비치에서 롱비치 방향으로 가도 되고 반대로 롱비치에서 헌팅턴비치 방향으로 오다가 만날 수도 있다. 웨스트민스터 블라드 서쪽으로 오다가, 실비치 블라드로 갈아타고 서쪽으로 계속 오면 실비치에 도착한다. 하지만 도로에서 피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나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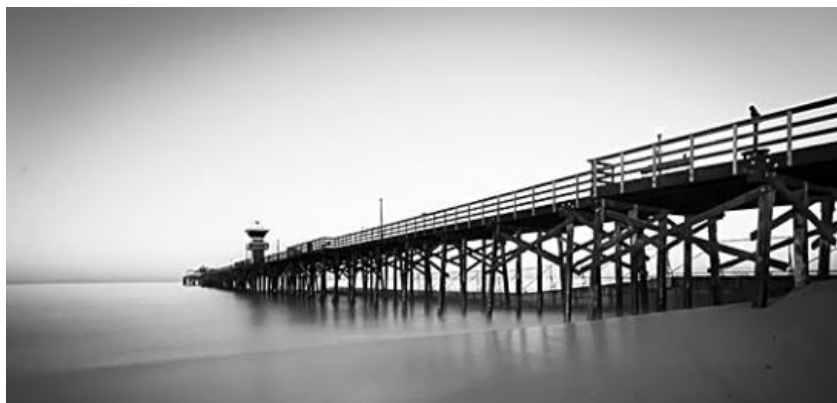
어떤 방향에서든 PCH를 타고 실비치에 도착하면 메인 스트리트(Main St)에서 피어 방향으로 턴을 하면 된다. 피어까지 이어지는 길에서 올드 타운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맛집과 카페, 그리고 갤러리들이 모여 있다. 예쁜 단층 건물들 사이로 걷다 보면 피어가 보이고, 실비치 표시판이 눈에 띈다. 입구에 세워진 간판에는 바람, 온도, 파도 등 다양한 정보가 있어 이곳이 서퍼들의 천국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실비치라는 이름과 달리 바다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본래 실비치는 오렌지 카운티 최초의 항구도시로 베이 시티(BAY CITY)라고 불렸으나 바다사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실비치로 바꾸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개체수가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바다사자들이 찾지 않고 있다.

피어를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관광지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휴식처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실비치는 캘리포니아 서퍼의 휴타운으로 불리는 헌팅턴비치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서퍼들이 찾는 곳이다.

실비치 맛집으로는 크레페로 유명한 'THE CREMA CAFE', 달콤한 와플이 있는 'OLD TOWN CAFE' 등을 들 수 있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RIVER SEND' 카페의 망고치킨이나, 피쉬 앤칩스 등도 유명하다.

Seal Beach Pi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알아 볼 수 있다.
<https://www.californiabeaches.com/attraction/seal-beach-municipal-pier/>



▲ 실비치 피어.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